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8. 29.(목) 11:00 < 8.30.(금) 조간 > 배포 2024. 8. 29.(목)

"폭풍 속 유통산업, 혁신만이 살 길이다"

- 박성택 산업부 1차관, 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 개최
- 10월 중 '유통산업 발전방안', '유통산업 AI 활용전략' 발표
- 추석맞이 특별 할인과 11월 코세페에 유통업계의 적극 참여 당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8.29(목),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총괄, 인프라, 제도, 글로벌 진출)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유통업계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유통물류과 온라인유통TF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4380)
		담당자	사무관	김애경 (044-203-4383)
		책임자	팀 장	윤영범 (044-203-4359)
		담당자	사무관	정원우 (044-203-437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